

1.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방안
2. 저출산고령화 시대 치매대책
3. 대덕구 사회복지관 건립방안

* 심 현 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 심 현 영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교육감과의 일괄질문·답변을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지역의 치매 대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인 대덕구에 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11년도 교육

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6만 3,500명이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4만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2009년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8,036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 학업중단학생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인데 비해 대전시는 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배움의 길을 걸으며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 중 매년 2,0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서로 남의 일인 양 방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아이들의 약 45%가 학교 부적응 때문에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학교 밖으로 나간 후 치료하는 치료적 접근방법보다는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적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해 5월부터 학업중단예방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한 학생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학이나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한 6,465명의 고교생이 학업을 중단하려 했으나, 각 학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해 27%에 해당하는 1,738명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유독 학업중단 분야에서만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학업중단대책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김신호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가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와 그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대책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구제하여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신호 교육감

존경하는 심현영 의원님의 대전교육 사랑과 학생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대전의 청소년 학업중단비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는데 그 이유와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중도탈락학생들을 구제해서 학교 안으로 귀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심현영 의원님께서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난 6월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청소년기의 방향을 지역공동체가 올바르게 지도해서 국가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대전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이유와 예방대책 수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매년 1,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동반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 등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고 대안 학교 선택, 검정고시를 목표로 한 학교 자퇴 등도 과거에 비해서 증가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에 의한 중도탈락학생 비율이 40%를 상회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부적응에 의한 중도탈락학생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방황·배회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부적응에 따른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하여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학교를 선택한다든지 검정고시를 목표로 학교를 자퇴한다든지 타시·도에 전학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이 발행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대책도 주로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의 원인은 학습부진의 누적, 분노 조절이나 대인

관계 능력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 가정의 해체, 유해매체의 범람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맞춤식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인분석과 유형에 맞는 단계적 지도로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여 학습부진이나 행동장애에 대한 개인별 원인을 찾아내서 학습 부진의 유형별 맞춤식 지도를 위해서 학습클리닉센터를 시교육청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나눔과 배려 등의 인성지도를 위해서 Wee클래스와 Wee센터로 연결되는 Wee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전문상담인력 171명을 확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상담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체에 의한 가출학생들을 위해서 남녀학생 가정형 Wee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미혼모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수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2주간의 학업중단 숙려제와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적응력배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등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고,

퇴학 위기 학생에게 2주간의 특별교육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건부 특별교육이수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용문동에 48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대전산업정보 학교를 개교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게 될 경우 중도탈락학생들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대로 다른 곳에 위기 학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대책들은 사전예방과 치유 복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범사회적 협력을 위해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청, 대전지방경찰청 및 사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 및 사회적 지원방안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의원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듯이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커가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현영 의원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다한 업무와 여러 현안문제로 노고가 많다는 사정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하는 집행기관에서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현실입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대전에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평생교육시설인 청소년대안교육센터 하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홍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보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써 청소년대안교육기관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울과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대안교육기관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대전시에서만 이러한 청소년대안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평생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만 가지고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져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왜 대전만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탈락비율이 높은 것인지, 또 이들을 수용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와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을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중핵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실의에 빠져 자신의 꿈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더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원해 주고 주변에서 애정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줄 때 대전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시대 우리 시의 치매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감소와 맞물려 노동, 주택, 소비 부문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점차 늙어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어 노인 치매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노인 인구가 14.5% 증가하는 동안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고령자 증가속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치매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8조 7,000억 원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2012년 대전시의 치매노인 수는 노인인구 14만 1,930명의 9.1%인 1만 2,916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4,338명입니다.

그동안 치매는 가정 내 문제로 외부에 알려지는 걸 숨겨오면서 배우자, 자식, 가족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가정을 파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95세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정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질환인 치매에 대하여 대전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대처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5개구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입니다.

치매는 암과 함께 무척 잔인하고 가정을 황폐화시키는 질병으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치료를 실시한다면 요양시설 입소율이 55%가 감소하고 요양비용은 연간 5,174억 원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현재 5개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선별검사 1만 7,433명, 진단검사 559명, 감별검사 146명 등 총 1만 8,138명에 대한 검사를 함으로써, 1개 보건소당 연 3,627명, 월 302명에 대한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에 따라 보건소 등록관리,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연계, 치매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 의료기관 연계, 조호물품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무를 전담인력이 없이 1명의 직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어진 기본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바쁜 일정이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센터 활성화를 위한 치매검진대상자 확대,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치매에 대한 이해 및 검진의 실효성, 치매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기치매 및 고위험군 대상, 지역 내 주간보호기관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치매일 경우에는 지역사회보호가, 의존성이 높은 말기치매일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치매노인들은 주간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을 증진시키게 되고 이것이 치매노인들의 우울증, 이상행동, 기억장애와 같은 문제행동의 감소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역 내 주간보호기관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판정된 1~3급의 요양등급자는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제도권 밖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지원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생활고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초기 치매를 앓는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주·야간 보호시설의 월 이용료 42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대한 가족부담 완화정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맞춤형 치매정보 제공입니다.

치매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 홈페이지 및 각 자치구 보건소에 치매정보를 링크시켜 각종 치매예방법, 치매지원사업, 치매 관련시설들을 안내해 준다면, 치매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대덕구에는 대덕, 중리, 법동 대전사회복지관에서 덕암동, 법동 그리고 비래동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대화동, 중리동, 오정동, 회덕동 인근 주민들은 사회복지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 1〉 대덕구 사회복지관 위치도



대덕구에 위치한 4개 사회복지관이 동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회덕동 인근 주민들은 철로와 도로가 가로막혀 있어 사회복지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지역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08가구 1,956명으로 대덕구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수급자도 2,050명이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표 1〉 대덕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2년 5월

(단위: 가구, 명)

구 분	일반수급자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대덕구	4,216	7,457	3,938	6,719	234	653	43	84	1	1
소계	1,108	1,956	996	1,698	81	216	9	20	0	0
오정동	362	600	331	526	26	64	3	8	0	0
대화동	267	451	231	393	14	34	3	5	0	0
중리동	479	905	434	779	41	118	3	7	0	0

〈표 2〉 대덕구 차상위계층 수급자 현황

2012년 5월

(단위: 가구, 명)

보장자격	계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가구수	수급자
계	1,120	2,050	350	608	221	375	549	1,067
모자가족	288	723	65	163	44	112	179	448
조손가족	2	5	1	3			1	2
부자가족	95	251	32	86	15	42	48	123
차상위장애인	175	186	59	64	39	41	77	81
차상위자활	78	78	28	28	18	18	32	3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435	696	144	238	102	156	189	302
청소년한부모 부자 가족	3	6	1	2			2	4
우선돌봄차상위	44	105	20	24	3	6	21	75

이에 본 의원은 오정동, 대화동, 중리동, 회덕동 인근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 지역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대덕구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염홍철 시장

심현영 의원님께서서는 학교를 벗어나 방황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과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노인 치매의 사회적 문제점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셨으며

철로와 도로로 양분된 대덕구 서쪽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대책과 이들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마련 계획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지금 현재 대전지역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약 1,575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청소년보호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와 교육청, 노동청, 경찰청 및 청소년쉼터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복귀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취업 등을 위한 두드림존을 운영하여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역량을 펼칠 복합공간으로서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의 추가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유희보육 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구에 설치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충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치매는 사실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가족의 문제이고 또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자기에겐 닥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심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치매상담센터의 담당인력은 보건소별로 1명으로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치매업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치매로 인한 가정부담과 가족해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년 2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 각 보건소 치매상담 센터에 치매업무 담당인력을 1명 내지 2명씩 추가배치하여 전담 시킴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기치매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내 주간보호시설 확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치매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은

31개소 600명 정원에 지금 336명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시설 여건은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의 경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시설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나가면서 시립노인병원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을 연장, 지금 3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등 현재의 주간보호시설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 치매등급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치매질환 조기발견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 정보 제공시스템구축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심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와 각 보건소 간에 치매 정보를 링크시켜서 시민들께 정확하고 폭넓은 치매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준비 중인 치매지식 정부 포털사이트가 내년 초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시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 확산과 치매질환의 조기 발견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오정, 대화, 중리, 회덕동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 하셨습니다.

현재 대덕구에는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는 21개소니까 평균 정도의 사회복지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 대화, 회덕지역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많음을 감안하여 시에서도 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주체인 대덕구의 사업추진의지가 중요하므로 대덕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과 심현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